

05

정부 네트워크와 지식네트워크

G6/G7과 통화주의의 결합

■ 조동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

『‘자주’의 자가당착』(2004)

『교범이 된 거짓말: 쿠바 미사일 위기와

1차 북핵위기에서 Trollope 기법』(2007)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2007, 공저)

Contents

1 들어가며

2 G6/G7 네트워크

3 G6/G7 네트워크와 통화주의

4 나오며

1970년대 석유파동과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세계경제의 혼란은 세계 경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 현상을 초래했다. 첫째, 케인스학파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통화량 조정을 중시하는 시카고학파가 부상하게 되었다. 케인스학파의 정책 제안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귀결된 반면, 통화론자들은 1970년대 세계경제의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는 모형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경제를 운영하는 기제로서 G6/G7의 등장이었다. 지식체계 간 경쟁과 G6/G7 출범이 동시대에 발생했기 때문에 G6/G7은 자연스럽게 지식체계 간 경쟁의 장소가 되었다.

1970년대 G6/G7에서 주요 쟁점은 성장/고용과 물가안정이었다. 케인스학파는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불황 탈피를 권고했고, 시카고학파는 통화량 조정을 통한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는 케인스학파의 권고를 수용한 반면,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고전적 통화론자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G6/G7내부에서 쟁점 간 경쟁과 지식체계 간 경쟁은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통화주의가 G6/G7에서 수용되면서 해소되었다. 통화주의와 G6/G7의 결합이 현재까지 이어져 G8 네트워크는 신자유주의 지식체계와 연관되어 있다.

주제어

G6/G7, 케인스학파, 통화주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시카고학파

1. 들어가며

G8은 세계경제와 정치를 운영하는 주요 8개국으로 구성된 집단이다.¹⁾ G8 회원국은 세계 총생산의 62.9%를 차지한다.²⁾ G8 회원국은 세계 군비의 67.6%를 차지하며, G8 회원국에는 평균 145개국의 상주사절이 파견되어 있다.³⁾ 현재 G8은 1970년대 세계경제의 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G6/G7이 확대된 결과다.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의 정상은 세계경제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기획된 정상회담을 통하여 의견과 처방을 공유하며 느슨한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의 의제

1) 현재 G8은 1970년대 초반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1975년 G5 재무장관회의가 정상회담으로 격상될 때, 이탈리아가 참여하여 G6가 되었다. 1976년 캐나다가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정식 회원이 되어 G7으로 확대되었다. 1998년 러시아가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을 받아 G8이 확정되었다. 러시아는 G8 회원국이지만, 러시아를 배제한 G7 재무장관 회의가 지금도 작동되는 점을 고려하면 G8 회원국의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World Bank Group, 200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http://www.worldbank.org/>(검색일: 2008.3.14).

3)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07, The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http://www.sipri.org/>(검색일: 2008.4.20); Bayer, Resat. 2006. Diplomatic Exchange Dataset(v.2006.1). URL: <http://correlatesofwar.org/>(검색일: 2007.11.20).

는 1970년대 후반 환율조정, 무역수지 적자, 환투기 등 세계경제의 주요 쟁점에 국한되었으나, 1980년대 핵무기 등 세계정치까지 포함하였고, 냉전 이후 핵무기 확산/통제와 지구화까지 포함하였다. G8은 세계경제와 정치를 운영하는 주요 행위자들의 모임인 동시에 세계경제와 정치를 운영하는 네트워크로 발전하였다.

G6/G7과 통화주의의 결합은 세계경제의 주요국 정상 간 모임이 정체성을 갖춘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기였다. 1970년대 초반 세계 경제의 혼란에 대한 케인스학파의 처방은 저성장과 물가상승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케인스학파의 정책 처방이 실패로 나타나자, 통화량 조절로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통화주의의 처방이 새로 운 정책 대안으로 부상하였다.⁴⁾ 통화주의 정책 제안과 케인스학파의 정책 제안 간 대결은 주요 선진국 내부는 물론 G6/G7에서도 발생하였다. G6/G7 회원국 정상들은 세계경제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다가 서서히 통화주의 정책 제안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들은 회원국 간 긴밀한 정책 협의를 통하여 통화주의 정책 제안을 국내정책에 반영하였다. G6/G7이 통화주의와 결합하면서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이 논문은 1970년대 G6/G7과 통화주의의 결합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두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1970년대 G6/G7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행위자-네트워크’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적으로 기술한다. 둘째, 지식 네트워크로써 통화주의 성장을 기술하고, G6/G7에서 통화주의 정책 대안

4) De Long, J. Bradford, "The Triumph of Monetaris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1 (Winter 2000), pp.91~92. Hafer, R. W., "What Remains of Monetarism?", *Economic Review* 86-4(Winter 2001), pp.18~20.

이 수용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고용회복과 물가안정 간 정책 목표의 충돌에서 물가안정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G6/G7 정상회담의 선언문을 분석하면서 제시한다.

2. G6/G7 네트워크

G6/G7 네트워크는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인한다.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브레턴 우즈 체제의 단점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주요국 재무장관 모임이 형성되었고,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가 정상회담으로 격상되었다. 정상회담을 통한 토론과 의견 조율은 단순한 정책 조율을 넘어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져 네트워크로 이어졌다. 이후 G6/G7 네트워크는 세계경제를 운영하는 규칙과 세계경제의 환경까지 구성하는 행위자가 되었다. 이 장은 행위자-네트워크 분석틀로 G6/G7 네트워크 형성을 기술한다.

(1) ‘행위자-네트워크’ 분석틀

행위자-네트워크 분석틀은 관찰 대상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 간 구별을 비판하며,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자연과 사회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현실(reality)은 자연과 같이 실존하며, 담론과 같이 구술되며, 사회와 같이 축적(collective)된다.⁵⁾ 자연, 사회, 언어 간 엄격한 구별이 없고,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모두 주어진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

5) Latour, Bruno, *We Have Never Been Modern* (New York, NY: Harvester Wheatsheaf, 1993), p.6.

로 구성된 결과다. 사람과 비인격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결과는 과학적 사실로 수용되는 자연이거나,⁶⁾ 과학기술이거나,⁷⁾ 사회일 수 있다.⁸⁾ 자연, 과학기술, 사회는 주어진 현실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를 모두 반영한다.

네트워크는 행위자의 집합과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포함한다.⁹⁾ 네트워크 안에 있는 행위자는 특정한 쟁점, 사물, 현상 등에 의하여 특정 모임에 들어온다. 이들은 상호 작용을 하면서 특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중개하는 매개물(intermediary)이 나타날 수 있다.¹⁰⁾ 매개물을 통하여 행위자는 상호 의견교환을 한다. 행위자와 매개물을 통한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일단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네트워크 안에 있는 행위자는 매개물과 이미 만들어진 행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네트워크와 행위자는 서로를 구성한다.

새로운 네트워크는 기존 네트워크로부터 만들어진다.¹¹⁾ 새로운 네트

6) Latour, Bruno, "Technology is Society Made Durable", John Law(ed.), *A Sociology of Monsters* (New York, NY: Routledge, 1991), pp.103~131; Latour, Bruno and Steve Woolgar, *Laboratory Life: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 Fact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7) Bijker, Wiebe, The Social Construction of Fluorescent Light, or How an Artifact was Invented in its Diffusion Stage, Wiebe Bijker and John Law Latour(eds.), *Shaping Technology / Building Society Studies in Sociotechnological Change* (Cambridge, MA: MIT Press, 1992), pp.75~102; Law, John and Michel Callon, The Life and Death of an Aircraft: A Network Analysis of Technological Change, Bijker and Law(1992), pp.20~52; Latour(1991).

8) Woolgar, Steve, The Turn to Technology in Social Studies of Science,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16-1(Spring 1991), pp.20~50.

9) Wasserman, Stanley and Katherine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MA: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1994), p.20.

10) 매개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자 사이에서 통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Law and Callon(1992), p.25.

11) 행위자-네트워크 분석틀은 세상(네트워크)이 행위자보다 먼저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워크의 형성 순서를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암상자(black box)의 형성이다. 네트워크 안에 있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네트워크 안에 있는 행위자들은 특정 현상이나 사물에 관하여 가정, 인과 관계, 처방 등을 포함한 공유된 지식을 가지며,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규칙을 가진다. 암상자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무관심의 대상이 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¹²⁾ 암상자는 투입과 산출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암상자가 안정적일수록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높다.

둘째, 번역(translational)이다. 네트워크 안에 있는 행위자들이 기존 암상자에 부합하지 않은 현상 혹은 생각을 인지하게 되면, 기존 암상자를 열어 새롭게 해석할 필요 혹은 가능성을 고려한다. 기존 암상자에 대한 도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행위자들이 기존 암상자를 열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기존 암상자를 열기로 결정한 행위자는 자신들의 생각과 목표를 다른 행위자에게 투영하고 다른 행위자들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끌어 들이려 한다. 이 과정이 번역이다. 번역은 기존 암상자에 도전하기로 결정한 행위자들이 취하는 모든 협상, 모략, 계산, 설득, 그리고 폭력을 모두 지칭한다.¹³⁾ 번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새로운 네트워크가 탄생한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번역의 논리에 따라 구성된다.¹⁴⁾

새롭게 형성된 네트워크의 안정화(stabilization)는 해석의 유연성 상

12) Callon, Michel and Bruno Latour, *Unscrewing the Big Leviathan: How Actors Macro-Structure Reality and How Sociologists Help Them to Do So*, K. Knorr-Cetina and A. V. Cicourel(eds.), *Advances in Social Theory and Methodology: Towards an Integration of Micro and Macro-Sociology* (Boston, MA: Routledge, 1981), p.285.

13) Callon and Latour(1981), p.279.

14) Callon, Michel, The Dynamics of Techno-Economic Networks, Rod Coombs and Paolo Saviotti(eds.), *Technological Change and Company Strategy: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London, UK: Academic Press, 1992), p.84.

실을 의미한다.¹⁵⁾ 네트워크 안에 있는 행위자들은 네트워크로 인하여 형성된 관계에서 존재함으로 새로운 번역에 저항하며, 향후 새로운 번역 가능성에도 저항한다.¹⁶⁾ 이러한 저항 노력이 성공하면, 즉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산물(artifact)에 대한 합의가 커지면, 네트워크는 안정화된다. 행위자들은 더 이상 새로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 사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암상자가 닫혀진 상태다. 네트워크의 안정화는 분화(diversification)에 따른 이질성으로 더욱 강화된다. 네트워크의 암상자를 공유하는 다양한 행위자가 유입되고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면, 네트워크는 분화되며 그 영향력은 증가한다.

2. G6/G7 네트워크의 형성

G7/G8은 국제사회가 1970년대 세계경제의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근간이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하면서,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제와 방식이 필요해졌다. 당시 자유진영 선진국가들은 공통 관심사를 토의하는 공간으로 G6를 출범시켰다. 이후 G6는 세계경제와 정치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회원국을 추가시켰고, 관할 쟁점을 확대시켰다. 이 절은 1970년대 세계경제의 위기와 G6/G7 형성을 행위자-네트워크 분석틀로 기술한다.

15) Bijker, Wiebe, *Of Bicycles, Bakelites, and Bulbs: Toward a Theory of Sociotechnical Change* (Cambridge, MA: MIT Press, 1992), p.86.

16) Callon(1992), p.91.

(1) 존슨 충격과 석유파동: G6/G7 네트워크의 등장 계기

G6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행위자를 불러 모은 계기는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는 기축통화로써 달러화의 특별한 지위와 국제 유동성 공급 간 상충관계를 묘사한 ‘트리핀 딜레마’에 기인하였다. 달러화는 금과 함께 통화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었고, 대외준비를 위한 통화였고,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개입통화였다. 금의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국제유동성 공급의 원천이 되었다. 미국은 달러화의 특별한 지위를 활용하여 국제수지 적자를 지속하였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과도하게 누적되자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세계금융질서의 안정을 선택하기보다는 국제수지 적자를 선택했다. 1960년대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미국의 대외준비(금준비) 사정이 악화되자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달러화에 대한 방어조치를 강구하였고, 존슨 대통령은 1965년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종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¹⁷⁾ 하지만 미국은 국내적으로 위대한 사회와 연관된 사회적 사업을 실시했고, 월남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를 선택하였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세계금융질서의 안정을 깨트렸다. 트리핀 딜레마가 현실화되었다.

프랑스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주장

17) President Johnson, Lyndon B.,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20th Annual Meeting of the Board of Governor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65, *Summary Proceedings of the 20th Annual Meetings of the Board of Governors* (September 27-October 1, 1965),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65), pp. 1~5.

을 비판하며, 현재(1966년 당시) 그리고 근접한 미래에도 국제유동성의 양은 생산과 교역의 성장을 제어할 만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⁸⁾ 더 나아가 프랑스는 미국이 국내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수지 적자를 이용한다고 명확하게 지적하였다.¹⁹⁾ 프랑스는 브레턴우즈 체제의 통화안정 기제가 미국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유한 달러화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무역에서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국가들이 1960년대 중반 달러화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서방 선진국과 협의를 통하여 1960년대 후반 달러화의 금태환을 중단시켰지만, 다른 국가들의 금태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미국의 금준비는 1970년 22% 수준까지 떨어졌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달러화의 금태환을 중단시켰다. 기축 통화로써 달러화의 금태환이 무너지자 세계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다. 주요국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게 되었고, 근린공핍화 정책의 조짐이 나타났다. 서방 경제선진국은 협의를 통하여 1971년 12월 미국 달러화를 금 1온스당 35달러에서 38달러로 평가절하하고, 변동환율의 폭을 2.25%로 정하는 스미소니언 합의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1973년 1월 미국은 달러화 투매 현상에 대항하여 다시 달러화의 가치를 금 1온스당 42.22달러로 평가절하를 감행하였다. 미국의 조치는 세계금융시장을 마비시켜 1973년 3월 외환 시장이 열리지도 못할 정도였다.

18) Debre, Michel, "Statement by the Governor of the Bank for France i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ummary Proceedings of the 21st Annual Meeting of the Board of Governors* (Washington, D.C.: IMF, 1966), pp.37~48.

19) De Gaulle, Charles, Conference de Presse Tenue au Palais de L'Elysee(4 Fevrier 1965), Charles de Gualle, *Discours et Message IV*(Paris: Plon, 1970), pp.330~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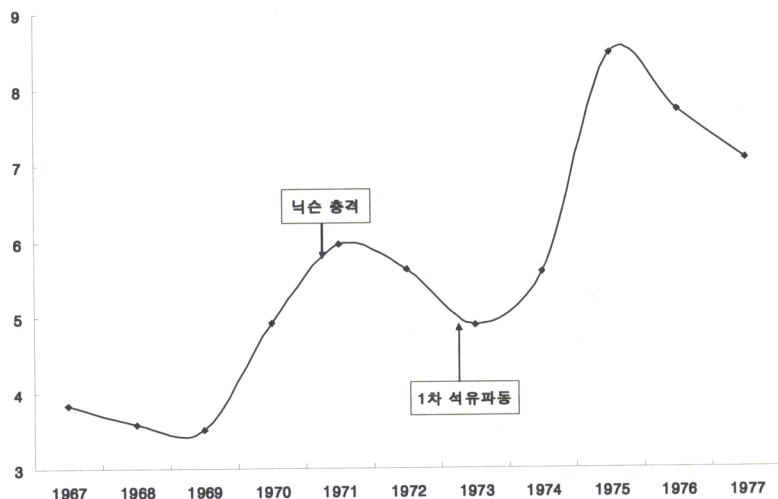
둘째, 1차 석유파동이었다.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은 국내 자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유화 조치 등을 취하면서 동시에 국내 자원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규범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인민과 국가는 국내 자연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을 가지며, 이들의 권리는 해당 국가 국민의 복지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국제연합총회 결의안 1803(1962년 12월 14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자원 민족주의는 자연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이해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산유국도 자원 민족주의를 주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1949년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공동 이익을 협의하기 위한 통로로 산유국간 협의체를 제의하였다. 이런 노력은 1960년 OPEC 창설로 이어졌다. 창립 회원국은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였다.²⁰⁾ 카타르가 1961년, 인도네시아와 리비아가 1962년,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1967년, 알제리가 1969년, 나이지리아가 1971년 OPEC에 가입하였다.²¹⁾ OPEC은 1960년대 내부적으로 공동 견해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OPEC이 세계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말미암아 공급자 카르텔로 작동할 수 있었지만, 내부 의견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960년대 OPEC은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

20)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되는 석유를 줄이는 대신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석유를 늘려, OPEC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베네수엘라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

21) 1971년 이후 OPEC에 가입한 국가는 에콰도르(1973년 가입, 1992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회원권 정지), 양골라(2007년 가입), 그리고 가봉(1975년 가입, 1995년 탈퇴)이다. OPEC 사무국은 1960년부터 1965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가 196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전되었다.

[그림 5-1] 미국 실업률 통계(단위: 백분율)²²⁾



1973년 10월 전쟁은 OPEC을 움직였다. 1973년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와 시리아의 선제공격이 실패한 이유가 이스라엘에 대한 서방 선진국의 지원이라고 주장한 아랍 국가들은 OPEC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표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OPEC 국가들은 원유 수출가격을 배럴당 2.59달러에서 4.065달러로 인상하였다(57% 인상). 1974년 1월 OPEC 국가들의 원유 수출가격은 배럴당 11.65달러까지 상승하였다(350% 상승).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친소관계를 근거로 원유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을 결정하였다. 원유 수입국은 아랍 국가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거나, 값비싼 원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원유가격 상승은 세계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졌다. 석유 수입국은

2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cd-rom)(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8).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경기 후퇴를 경험했다. 경기 후퇴는 실업 증가로 이어졌다. [그림 5-1]은 1차 석유파동이 미국의 실업률 증가로 이어진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만이 겪었던 현상이 아니라 선진국 모두가 경험하였다.

(2) Library Group: G6/G7 네트워크의 모태

1962년 형성된 G10은 G6 네트워크의 시발점이었다. G10은 국제통화기금의 인출금액 확대를 위하여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출연금 중액을 약속한 국가들의 모임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으로 구성되었다. 원래 G10은 국제통화기금의 단기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브레턴우즈 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공식적 기구/제도는 아니었지만, 국제통화기금의 공식행사를 전후로 선진 1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동을 통하여 세계금융의 주요 쟁점을 해결하는 관행을 가졌다.²³⁾

G10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은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금태환 중지 선언 이후 세계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1971년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하였다. G10은 1971년 12월 미국 달러화의 평가절하(금 1 온스당 35 달러에서 38달러), 2.25% 변동환율 폭에 합의하였다. 스미소니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재무장관 숀츠(George Shultz)는 프랑스 재무장관 대스탱(Valery Giscard d'Estaing)과 독일 재무장관 슈미트(Helmut

23) G10은 막후 협상을 통하여 1968년 특별인출권 창설과 1969년 독일 마르크화 위기 해결에 기여하였다. G6/G7이 만들어진 후에도 G1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모임은 2000년 5월까지 간헐적으로 열렸다. 스위스는 1964년부터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국제통화기금, OECD도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Schmidt)에게 영국과 일본 대표와 함께 백악관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제의하였다. 5개국 재무장관은 비공개로 만나 세계금융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²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재무장관은 1973년 백악관 도서관에서 만나 Library Group을 형성하였다. 일본 재무장관은 1975년 9월부터 Library Group에 참여하였다.²⁵⁾ 이후 G5 회원국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이사회에서 별도 회동을 가지거나, 특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동하였다.²⁶⁾

Library Group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네 가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Library Group 각 회원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4%를 초과하였다([표 5-1] 참조). 일본은 초기 Library Group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거대한 경제규모로 인하여 Library Group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규모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선별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적 유대감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일본은 경제규모에서 보면 당연히 Library Group에 처음부터 가입되어야 당연하지만, 1971년 워싱턴 회동 이후 1973년 9월까지 참여하지 못했다.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일본에서는 재무장관이 세 번씩이나 바뀐 반면, 나머지 국가에서는 장관 교체가 없었다. 셋째, 공식 기구보다는 비공식 네트워크가 세계경제를 운영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경제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하여

24) D'Estaing, Giscard Valery, *Le Pourvoir et La Vie* (Paris: Compagnie 12, 1988), p.125.

25) Bayne, Nicholas and Robert D. Putnam, *Hanging in There: The G7 and G8 Summit in Maturity and Renewal* (Burlington, VT: Ashgate, 2000), p.34; Putnam, Robert D. and Nicholas Bayne, *Hanging Together: The Seven-Power Summit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29.

26) G5 재무장관회의는 여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경제문제에만 집중하였다. Putnam and Bayne(1987), pp.233~259.

[표 5-1] 국내총생산 순위²⁷⁾

순위	국가	1969년		1973년		
		백분율(%)	민주주의	국가	백분율(%)	민주주의
1	미국*	31.83	10	미국*	30.28	10
2	일본*	13.64	10	일본*	15.28	10
3	독일*	7.98	10	독일*	7.67	10
4	영국*	5.94	10	영국*	5.70	10
5	프랑스*	4.91	6	프랑스*	4.94	8
6	이탈리아*	4.13	10	이탈리아*	4.02	10
7	캐나다*	2.27	10	캐나다*	2.27	10
8	스페인	1.85	0	스페인	1.94	0
9	러시아	1.83	0	브라질	1.88	0
10	브라질	1.48	4	러시아	1.70	0
11	멕시코	1.44	0	멕시코	1.53	0
12	네덜란드*	1.34	10	네덜란드*	1.31	10
13	스위스	1.26	10	스위스	1.23	10
14	아르헨티나	1.25	3	아르헨티나	1.22	6
15	호주	1.22	10	호주	1.17	10
16	스웨덴*	1.01	10	스웨덴*	0.95	10
17	인도	0.91	9	벨기에*	0.87	10
18	벨기에*	0.86	10	중국	0.84	0
19	덴마크	0.76	10	인도	0.83	9
20	중국	0.71	0	덴마크	0.71	10

국제통화기금 이사국으로 구성된 C20가 1972년에 결성되었지만,²⁸⁾ 의전 형식 등의 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반면, 비공식 모임인 Library Group은 세계경제 운영의 핵심 기제가 되었다. 넷째, 국내정치 지향이 참여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탈리아 기독민주당(Christian

27)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08); Marshall, Monty G. and Keith Jagers, Polity IV Project: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06(2008), <http://www.systemicpeace.org/polity/polity4.htm>(검색일: 2008.4.18).

28) C20는 1974년 임시위원회(Interim Committee)로 명명되었고 국제재무금융위원회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로 공식화된 제도가 되었다. Hajnal, Peter I, *The G8 System and the G20: Evolution, Role and Documentation* (Burlington, VT: Ashgate, 2007), p.12.

Democracy)은 1962년부터 이탈리아 사회당(Italian Socialist Party)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집권하였다. 이탈리아 사회당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이탈리아 공산당(Italian Communist Party)과 달리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였지만,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보다는 좌파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G5 회원국은 좌파적 성향을 가진 이탈리아 중도좌파 연립정부의 참여가 내부 결속을 약화시킬 우려를 하였다.²⁹⁾

(3) G6/G7 네트워크

프랑스 대스탱 대통령과 독일 슈미트 총리는 G5 정상회담을 추진하였다. 대스탱 대통령은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재경부장관으로, 슈미트 총리는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재무장관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1972년부터 1974년까지 G5 재무장관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두 정치인은 비슷한 시기 대통령과 총리가 되었고, G5 재무장관 회담을 정상회담 수준으로 격상시키는데 공감하였다. 대스탱 대통령이 공식회담을 미국 포드 대통령에게 제안하였고, 포드 대통령도 찬성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은 1971년 7월 31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참석하면서 별도 회동을 가져 정상회담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의제는 세계경제상황과 세계금융체제로 정해졌고, 4개국 외에 일본의 참여를 확정하였다.³⁰⁾

이탈리아와 캐나다는 초청국 형태로 G5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었

29) Hajnal(2007), pp. 12~16. 이탈리아는 1974년 1월 로마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G5 회원국과 유대를 강화하려고 하였지만, 1974년과 1975년 G5 재무장관 회의에서 배제되었다. 첫 G6 정상회담에서도 이탈리아가 배제된 G5 정상회담이 있었으며, 1975년 이후에도 G5 회원국은 이탈리아를 배제한 채 G5 재무장관 회의를 1987년까지 지속하였다.

30) Schmidt, Helmut, *Men and Power: A Political Retrospective* (New York, NY: Random House, 1989), pp. 173~174.

다. 이탈리아의 경제규모는 프랑스와 비슷했지만, 이탈리아의 참여는 G5 정상회담이 열리기 두 달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G5 국가의 공동 초청 형식으로 1차 G5 정상회담에 참여하였다.³¹⁾ 캐나다는 2차 G6 정상회담 의장국인 미국의 초청으로 G6 정상회담에 참여하였다. 캐나다의 참여에 관하여 G5 국가는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프랑스는 G5 정상 간 소규모 회합이 이미 합의되었음을 강조하며, 캐나다의 참여를 반대하였다. 반면, 캐나다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미국은 캐나다의 참가를 강력히 희망하였다.³²⁾ 2차 주요국 정상회담 의장국으로 미국은 G6 정상회담을 공표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유대와 정상회담이 서반구에서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은 캐나다를 (정상회담에) 초청하였다고 밝혔다.³³⁾ 양국은 초청국으로 참여하였지만, 미국의 강력한 후원으로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1970년대 G6/G7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는 세 층위(정상급, 각료급, 실무급)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G6/G7 정상들이다. G6/G7 정상들은 연례 회동을 통하여 의견 교환을 하였다. 첫 정상회담은 프랑스 대통령의

31) Putnam and Bayne(1987), p.25. 이탈리아 참여는 1975년 9월 25일에 결정되었는데, 이는 유럽국가의 반발을 무마하는 성격을 가졌다. 당시 이탈리아가 유럽각료이사회(European Council of Ministers) 의장국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참석으로 유럽공동체를 배제시키기 용이하였다. 1975년 첫 G6 정상회담에서 이탈리아는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1975년 첫 G6 정상회담에서 G5 정상은 별도 모임을 가졌고, 이탈리아 연립정부에서 사회당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이탈리아에 대한 차관 제공을 결정하였다.

32) 1975년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 총액은 전체 수출의 63%,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 총액은 전체 수입의 72.5%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이 캐나다로 수출한 상품 총액은 전체 수출의 21.4%,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상품 총액은 전체 수입의 21.5%를 차지했다. Gleditsch, Ristia n S., Expanded Trade and GDP dataset (2004), <http://privatewww.essex.ac.uk/~ksg/exptradegdp.html>(검색일: 2005.10.23).

33) President Ford, Gerald, Press Conference, White House Press Release(June 3, 1976).

초청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 정상회담 이후 G6/G7 정상들은 협의를 통하여 차기 G6/G7 정상회담 의장국을 정하였고, G6/G7 의장국 정상은 다른 회원국 정상을 초청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G6/G7 의장국 순번은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다 순이었다.

둘째, 각료급 행위자로 재무장관과 외무장관들이다.³⁴⁾ G6/G7 재무장관은 G6/G7 정상회담에 배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접촉하였다. 또한 G5 재무장관은 G6/G7 재무장관 회담과 별도로 비공개 회동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운영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외무장관도 G6/G7 정상회담에 배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접촉하였다. G6/G7 정상회담이 세계정치의 현안을 의제로 포함하면서 외무장관이 G6/G7 네트워크에 참여하였다. G6/G7 외무장관 네트워크는 G6/G7 정상회담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회원국 간 차별이 없었다. G6/G7 외무장관은 G6/G7 정상회담과 별도로 국제연합총회 개막식과 같은 국제사회의 큰 모임에 참여하면서 별도로 회동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³⁵⁾

셋째, G8 정상의 대리인(sherpa)으로 형성된 연결망이다. G8 회원국 정상은 대리인을 통하여 정상회담을 사전 준비해 왔다. G8 회원국 정상의 대리인은 통상적으로 두 명의 부대리인(sous-sherpa)과 함께 활동한다. 한 부대리인은 재무담당 부처에서 다른 한 부대리인은 외무담당 부처에서

34) 무역장관들은 1978년 G7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배석하였고 1980년대까지 배석했었다. 하지만 Tokyo Round가 종결되면서 무역장관의 역할이 급속히 감소하여, 1980년대 초반 무역장관의 배석이 중단되었다.

35) 1998년 이후 각료회의는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용으로 변경되었다. 1990년대 G7/G8의 의제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참석하는 각료들의 숫자도 늘어나,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각료회담을 사전 준비용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정상회담을 최종 의견조율용으로 후진 배치시킴으로써 정상들은 개인적 유대 형성과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임명되는 관행이 있다. 대리인들이 정상회담과 부속 각료급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고, 정상회담에 배석하면서 기록을 담당하고,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G8 정상 회담의 큰 그림이 확정된다.³⁶⁾

G6/G7 네트워크는 1년 단위로 보면 방사형(hub-and-spoke)으로 조직되어 있다. G6/G7 의장국이 1년 동안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의장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은 의장국을 중심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G6/G7 네트워크의 중심이 매년 순환된다는 점에서 G6/G7 네트워크에는 고정 중심이 없다. G6/G7 네트워크는 1976년 캐나다의 가입 이후 1989년까지 외부 행위자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에서 닫힌 네트워크였다.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가 G6/G7 네트워크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거부당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G10 국가였고 경제발전수준도 취약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생산량의 1% 남짓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G5 재무장관회의로부터 배제된 이후, 세계경제를 운영하는 주요 기제로부터 멀어졌다. 1970년대 후반 호주도 G6/G7에 참여를 시도하였다.³⁷⁾ 호주는 지역대 표성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경제규모와 발전수준에서 약했기 때문에 참여를 거부당했다.

36) Fowler, Robert, Canadian Leadership and the Kananaski G-8 Summit: Toward a Less Self-Centered Foreign Policy, David Carment(et al. eds.), *Coping with the American Colossus: Canada among Nations* (Toronto, Canada: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221.

37) Kirton, John J., The Diplomacy of Concert: Canada, the G7 and the Halifax Summit, *Canadian Foreign Policy* 3-1(Spring 1995), p.65.

3. G6/G7 네트워크와 통화주의

G6/G7 네트워크는 G5 재무장관 네트워크에서 시작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이 질성을 가지고 있었다. 국내경제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1970년대 세계경제의 현안에 대하여 상이한 처방을 가지고 있었다. 즉, 네트워크 내부에 튼튼한 암상자(black box)가 존재하지 않았다. 첫 G6 정상회담은 일회성 행사로 기획되었고, 이후 일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G6 정상회담이 몇 차례 진행되면서 행위자 간 연결이 강해지고, 통화주의에 기반한 정책으로 국내 정책이 수렴되면서 G6/G7 네트워크는 안정화되었다. 1980년대 초반 통화주의는 G6/G7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물이 되었다.

(1) 통화주의

통화량이 경제현상을 설명한다는 가정은 오랜 지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³⁸⁾ 유럽에서 통화주의는 전후 브레턴우즈 체제 개혁 논쟁에서 부상하였다. 뤼에프(Jacque Rueff)는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환본위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취약하다고 주장하였다.³⁹⁾ 금본위제에서는 국제수지 적자가 국내 통화량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 통화량 감소는 구매력 감소와 초과 공급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국내

38) 경제현상을 예측하는 변수로써 통화량을 강조하는 전통은 David Hume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David Hume은 국제수지 적자가 초래하는 부정적 경제현상을 언급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Hume, David, *Of the Balance of Trade*, Eugene F. Miller (ed.), *Essays, Moral, Political and Liberty* (Indianapolis, IN: Liberty Fund, 1985), p.311.

39) Rueff, Jacque, L' Age de Inflation(Paris, France: Payot, 1963); Rueff, Jacque, *Le Lancinant Probleme des Balances de Paiement* (Paris, France: Payot, 1966); Rueff, Jacque, *Balance of Payments: Proposals for the Resolution of the Most Pressing World Economic Problem of Our time* (New York, NY: Macmillan, 1972).

가격 하락과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결국 국제수지 적자가 해소된다. 반면, 금환본위제에서는 대외준비만 유지하면 국제수지 적자를 통한 조정 효과가 사라지고, 국제수지 적자국이 유발한 인플레이션은 국내 인플레이션은 물론 다른 나라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수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뤼에프의 논리를 드골 행정부가 수용하면서, 통화주의는 유럽에서 공식적 후원국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셔(Irving Fisher)는 통화량이 경제현상을 설명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통화량이 가격 수준, 인플레이션,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⁴⁰⁾ 양차대전 사이 시카고 대학에서 바이너(Jacob Viner, 1892~1970), 나이트(Frank H. Knight, 1885~1972), 민츠(Lloyd W. Mints, 1888~1989), 시먼즈(Henry C. Simons, 1899~1946), 랑게(Oskar Lange, 1904~1965), 숀츠(Henry C. Schultz, 1893~1938)로 구성된 구 시카고학파(Old Chicago School)는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에 주목했으며, 급작스런 통화량 축소를 대공황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⁴¹⁾ 하지만 통화주의의 정책 대안은 양차대전 사이 수요 관리를 중시하는 케인스학파의 정책 대안에 밀려 일부 경제학자들에게만 통용되었다.

통화주의는 1950년대 시카고 대학에서 밀턴(Milton Friedman)과 그의 동료,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급속하게 성장하였다.⁴²⁾ 이들은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 혹은 고전 통화주의(Classic Monetarism)

40) Fisher, Irving, *The Purchasing Power of Money* (New York, NY: Macmillan, 1912); Fisher, Irving, *The Rate of Interest* (New York, NY: Macmillan, 1908).

41) De Long(2000), pp. 76~88.

42) Friedman의 지적 성장 경로와 경제학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Hezziel, Robert L., The Contributions of Milton Friedman to Economics, *Economic Quarterly* 93-1(Winter 2007), pp. 1~30 참조.

이라고 지칭된다.⁴³⁾ 시카고학파는 구 시카고 통화주의 학파의 지적 전통 아래서 통화량을 예측변수로 삼는 통화주의를 발전시켰다. 구체적으로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의 한계, 자연 실업의 존재, 통화 정책의 강력한 효과, 통화 정책의 단기적 효과, 승수 효과의 한계 등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었다.

1960년대 시카고학파는 통화주의가 경제 현실을 설명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프리드먼과 마이셀만(David Meiselman)은 통화량(money stock)이 통화공급(money supply)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케인스학파의 주장과 다르게 통화유통 속도가 안정적임을 보였다. 이들은 명목 수입이 통화량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음을 단일방정식(명목 수입을 종속변수로, 통화량을 원인변수로 설정)을 통하여 증명하였다.⁴⁴⁾ 이들의 경험적 연구는 소득승수효과가 안정적이라는 케인스학파의 주장과 상치되었다.⁴⁵⁾ 프리드먼과 슈워츠(Anna J. Schwartz)는 통화 공급이 가격과 소득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미국 경제 자료를 활용하여 증명하였다.⁴⁶⁾

43) 시카고학파는 Milton Friedman, George J. Stigler, Ronald H. Coase, Lester G. Telser, Arnold C. Harberger, Harry G. Johnson, Gary S. Becker, Sherwin Rosen, James M. Buchanan, Robert E. Lucas, Robert Fogel, Garry Becker, Richard Posner 등으로 구성된다.

44) Friedman, Milton and David Meiselman, *The Relative Stability of Monetary Velocity and the Investment Multiplier in the United States, 1897~1958*, Commission on Money and Credit(ed.), *Stabilization Policies* (New York, NY: Prentice-Hall, 1963), pp. 165~268.

45) 케인스학파는 Friedman과 Meiselman이 사용한 단일방정식 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통화주의의 경험적 연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Brunner, Karl, *Fiscal Policy in Macro Theory: A Survey and Evaluation*, R. W. Haffer(ed.), *The Monetary versus Fiscal Policy Debate: Lessons from Decades* (Totowa, NJ: Rowman and Allanheld), p. 41.

46) Friedman, Milton and Anna J. Schwartz,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시카고학파의 세인트루이스 지부(the province of an obscure sect with headquarters in Chicago)는 통화주의가 현실 경제를 설명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⁴⁷⁾ 앤더슨(Leonall C. Anderson)과 조던(Jerry L. Jordan)은 통화주의가 케인스학파보다 명목 국민소득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⁴⁸⁾ 이들은 명목 국민소득을 예측하는 독립변수로 통화량과 재정정책을 설정한 후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를 가졌는데,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통화주의가 단순히 설명력을 가진다는 수준을 넘어 케인스학파보다 우월하다는 합의를 가졌다. 연방준비제도에 소속되어 있던 경제학자들이 방법론적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⁴⁹⁾ 학계에서는 통화주의가 현실 경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앤더슨과 칼슨(Keith M. Carlson)은 통화주의에 기반한 경제안정 모형을 제시하였다.⁵⁰⁾ 이들은 통화 공급이 명목 지출, 가격 수준의 변화, 실질

47) Davis, Richard G., "How Much Does Money Matter?",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Monthly Review* 51-4(April 1969), p.119. 세인트루이스 지부와 시카고학파의 관계에 대하여 Hafer, R. W. and David C. Wheelock, "The Rise and Fall of a Policy Rule: Monetarism at the St. Louis Fed, 1968~1986",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83-1 (January/February 2001), pp.1~24 참조.

48) Anderson, Leonall C. and Jerry L. Jordan, Monetary and Fiscal Action: A Test of Their Relative Importance in Economic Stabilization,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50-11(November 1968), pp.11~24.

49)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Anderson과 Jordan의 연구 결과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Davis, Richard G., "The Role of the Money Supply in Business Cycle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Monthly Review* 50-3(April 1968), pp.63~73; Deleeuw, Frank and John Kalchbrenner, "Monetary and Fiscal Action: A Test of Their Relative Importance in Economic Stabilization Comment",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51-4(April 1969), pp.6~11.

50) Leonall C. Anderson and Keith M. Carlson, "A Monetarist Model for Economic Stabilization",

생산, 장기 이자율, 실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통화주의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통화 공급이 초래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⁵¹⁾ 이들에게 통화주의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이미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이론으로 현실 경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만 하는 이론이었다. 세인트루이스 지부의 경험적 연구 결과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상쇄관계를 가진다는 케인스학파의 가정을 부정하였다. 또한 통화주의 정책 대안이 단기 경제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정책 대안으로써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전파하였다.

1970년대 초반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결합은 통화주의가 정책 대안으로 사용되게 된 계기였다. 19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서방 선진국은 경기 둔화를 경험하였다([표 5-2] 참조). 캐나다를 제외한 6개국은 경기 후퇴를 최소 한 차례 경험하였고, 캐나다도 경기 둔화를 경험했다. 서방 선진국은 유효 수요창출을 통하여 경기침체에서 탈출하는 케인스학파의 정책 대안에 따라 재정적자와 공공사업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유효 수요를 늘리려는 조치는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되었다([그림 5-2] 참조).

반면, 1970년대 통화주의는 효과적 정책 대안으로 인정받았다. 통화주의자의 예측이 1970년대 적중했고, 경제 안정화의 수단으로 통화 정책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통화주의 정책 제안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통화량 조절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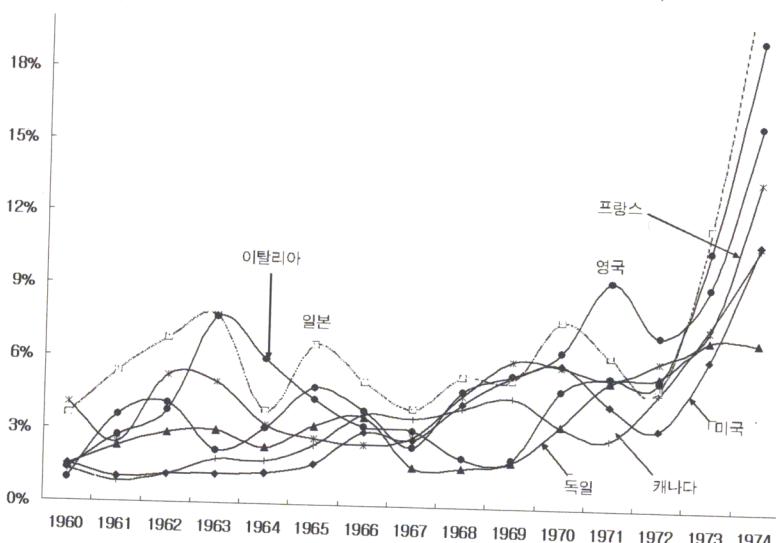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52-4(April 1970), pp.7~25.

51) Ibid., pp.10~11.

[표 5-2] G6/G7 회원국의 경제성장(단위: %)⁵²⁾

	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1970	3.03	0.17	5.73	3.63	2.36	5.31	10.71
1971	4.12	3.36	4.78	3.63	2.12	1.89	4.70
1972	5.45	5.29	4.43	3.63	3.63	3.15	8.41
1973	6.97	5.76	5.44	4.77	7.31	6.55	8.03
1974	3.69	-0.50	3.11	0.19	-1.68	5.28	-1.23
1975	1.82	-0.19	-0.28	-1.25	-0.68	-2.05	3.03

[그림 5-2]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금년 소비자 물가지수-전년 지수)/전년 지수)⁵³⁾



통제하자는 제안이다. 통화주의자들은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통화량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통화량 감소를 제안하였다. 둘째, 통화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은행으로 하

52) World Bank Grou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2008), <http://www.worldbank.org/>(검색일: 2008.03.14).

53) IMF(2008).

여금 예치금 인출에 대비한 준비가 예치금의 100% 수준에 이르도록 하고, 통화 공급량을 고정하고, 투자금과 단순 예치금을 엄격하게 구분하자는 제안 등이 있었다.셋째, 국가가 통화량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통화주의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주의를 계승하기 때문에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취했다. 구체적으로 정치 주기로부터 중앙은행을 절연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다.⁵⁴⁾

(2) G6/G7 정상회담: 시카고학파와 케인스학파의 경쟁 공간

통화주의와 케인스학파의 경쟁은 이미 1960년대 표면화되었다. 고전적 통화주의를 수용한 드골 행정부는 금태환제도로 인하여 금준비보다 많은 통화량이 공급됨을 지적하였다. 금준비보다 많은 통화량 공급은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으로 귀착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금태환제도를 폐지하고 금본위제도로 복귀하거나, 금태환 제도를 보완하는 집합준비단위(collective reserve unit)를 창설해야 한다는 입장 을 보였다.⁵⁵⁾ 프랑스의 도전은 1968년 학생소요와 드골 대통령의 하야 이후 정치적 혼란을 거치면서 잠잠해졌다.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분리: 케인스학파와 고전적 통화주의의 탐

1975년 G6 정상회담에서 통화주의와 케인스학파 간 경쟁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프랑스 대스탱 대통령은 포드 대통령의 낙관론에 회의적 견

54) De Long(2000), pp.88~91; Haffer(2001), pp.15~17.

55) De Gaulle(1965).

해를 밝힌 후, 케인스학파의 처방에 대하여 근본적 회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G6) 정부들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은 뒷걸음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틀렸다. 경제학자들이 계속 팽창주의 경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팽창주의 정책은 두 가지 위험에 처해 있다. 첫째, 팽창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로부터 수입을 했던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고 더 나빠질 것이다. 둘째, 재정수지 적자다. 재정수지 적자를 그렇게 계속할 수 없다. 재정수지 적자를 늘려 경기가 좋아진다면,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해야 한다. 반면 상황이 좋아진다면 재정수지 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경제성장을 막는다.⁵⁶⁾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이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독일 슈미트 수상은 프랑스 대스탱 대통령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원인이라고 암시하였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었고, 이는 통화가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고 하였다. 세계경제의 혼란은 실업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정치적 소요 사태로 악화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⁵⁷⁾ 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을 통하여 해소되며, 실업도 심

56) Note of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Heads of Government of France, Germany, Ital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Chateau de Rambouillet on Saturday, 15 November 1975 at 6:00 P.M, G6 Summit (session 1), Margaret Thatcher Foundation Archive, <http://www.margaretthatcher.org/document/F6E55D646BF5404188AC6841F557805B.pdf>(검색일: 2008.04.21).

57) Memorandum of Conversation(15 November 1975, Rambouillet, France), Ford Library: National Security Advisor Memorandum of Conversation(Box 16), National Security Archives, p.2.

각한 정치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⁵⁸⁾ 1960년대 미국과 프랑스 간 견해 차이가 G6정상회담에서도 계속되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의 견해에 동조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자국 사정이 어렵고, 실업이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영국과 일본은 상황이 나쁘지만, 재정수지 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지속할 의사임을 밝혔다. 특히 영국은 경제사정이 좋은 국가에게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이는 당시 상황이 좋았던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독일은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업 문제에 집중할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1975년 G6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의견차이로 인하여 프랑스는 공식 성명서(communiqu) 채택보다는 모호한 선언문(declaration) 채택을 제안하였다. G6 선언문은 산업 민주국(industrial democracies)은 높은 실업률, 지속적 인플레이션,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4항).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기 회복과 실업으로 인한 인적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5항). 인플레이션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⁵⁹⁾

통화안정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중시하는 고전적 통화주의는 1차 G6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인플레이션 감소가 두 번째로 중요한 쟁점임을 확인받았고, 외환시장의 안정성도 언급되었다. 국제통

58) Ibid., pp.3~8.

59) G6 Summit, Declaration of Rambouillet(17 November 1975) <http://www.g7.utoronto.ca/summit/1975rambouillet/communique.html>(검색일: 2008.04.21).

화제제 개혁을 둘러싼 프랑스와 미국 간 갈등이 화해 국면으로 들어서 국제 통화기금을 통한 개혁이 지속될 것임이 명시되었다(12항). 이처럼 고전적 통화주의가 프랑스의 지원 아래서 G6 네트워크 안으로 유입되었다.

1976년 G7 정상회담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경제회복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되었다. 신중하고, 질서정연하며 지속적인 팽창(deliberate, orderly and sustained expansion)이 세계경제 안정의 기반이 된다고 하며, 재정수지 적자를 통한 경기회복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반면, 인플레이션 억제는 부차적 정책목표였고, 과도한 추가 인플레이션 방지만이 언급되었다.⁶⁰⁾ 2차 정상회담의 합의는 1차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보다도 케인스학파에 더 가까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77년 G7 정상회담 선언문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인플레이션은 실업의 원인으로 명시되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고용을 안정화시키기보다는 여전히 고용 창출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다. 고용 촉진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소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견인 전략(locomotive strategy): 외형적 케인스학파의 압도 vs. 통화주의 후원국 확대
1978년 G7 정상회담에서 케인스학파의 정책 대안이 통화주의 정책 대안을 압도하였다. 성장과 고용이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되었고, 인플레이션 감소는 정책 목표가 아니라 성장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결과로 설정되었다. G7 정상회담 선언문은 경제현상의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60) G7 Summit, Joint Decla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28 June 1976) <http://www.g7.utoronto.ca/summit/1976sanjuan/communique.html>(검색일: 2008.04.21).

우리는 성장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발전시켜 고용을 확대하겠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책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반하여 발전시키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새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강조는 저자). 하지만 극심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줄이기 위하여, 인플레이션을 재발시키지 않는 성장이 필요하다. 이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것이다.⁶¹⁾

위 선언문에서 나타난 경제현상 간 인과관계는 경제 성장, 고용 증대, 국제수지 불균형 감소, 국제통화 안정으로 도식화될 수 있다. 경제성장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경로는 필연이 아닐 수 있기에 인플레이션을 재발시키지 않는 경제성장의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설정되면, 통화량 감소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추구하는 통화주의의 정책 제안과 다르게 성장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추구하는 케인스학파의 정책 제안이 채택될 수 있다. 고용 확대와 인플레이션 억제가 병립적 정책 목표가 아니라 인과관계로 연결됨에 따라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케인스학파가 G7에서 정책 대안으로 통화주의를 압도하게 되었다.

G7 정상회담 선언문은 국제수지 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경험하지 않는 국가가 국내수요창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반면, 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는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G7 정상회담 선언문은 개별 국가의 정책 목표를 명시하였다. 개별 국가의 정책 목표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61) G7 Summit, Declaration (17 July 1978). <http://www.g7.utoronto.ca/summit/1978bonn/communique/index.html>(검색일: 2008.04.21).

캐나다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고용을 증대하고 5% 경제성장을 이룬다. 독일은 국민총생산의 1%에 해당하는 추가경정예산(적자)을 활용하여 수요창출과 고용 확대에 나선다. 예산집행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자금 시장의 능력을 고려한다. 프랑스는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지속하지만, (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총생산의 0.5%에 해당하는 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한다. 이탈리아는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면서 동시에 투자확대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동원하여 1.5% 경제성장을 이룬다. 일본은 국내수요창출을 통하여 전년 경제성장을 보다 1.5% 올라간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영국은 이미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불균형을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고, 경기부양을 위하여 국민총생산의 1%에 해당하는 부양책을 사용하였다. 영국은 성장과 고용 확대를 위하여 인플레이션 억제를 지속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책으로 감세, 긴축예산, 규제완화 등을 사용한다.⁶²⁾

1978년 G7 정상회담 선언문을 분석하면, 프랑스, 미국,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탈리아가 통화주의 정책 제안을 수용한 반면, 독일, 일본, 캐나다, 그리고 영국이 케인스학파의 정책 제안을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화주의 정책 제안을 수용한 국가는 증가했지만, 성장과 고용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된 이유는 당시 급증한 실업률 때문이었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의 실업이 심각하여 단순 경제 쟁점이 아니라 정치 쟁점으로 바뀌었다.

인플레이션이 최대 쟁점으로: 통화주의 압도

1979년 2차 석유파동으로 에너지 위기가 G7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었고, G7 정상들은 석유소비감축을 최우선 경제 목표로 설정하였다. 인플레

62) Ibid.

이션이 두 번째로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그림 5-3] 참조).⁶³⁾ 하지만 1979년 G7 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다른 경제현상 간 인과관계 설정이 바뀌는 조짐이 명확하지는 않았다.⁶⁴⁾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위기와 함께 새로운 과제로 설정되었을 뿐이었다.

1980년 G7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이 최우선 과제였다. 1980년 G7 정상회담 선언문은 경제 현상 간 인과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었다. 인플레이션이 원인으로, 성장과 고용이 결과로 설정되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 억제와 통화 억제(fiscal and monetary restraints)가 언급되었다. 통화 팽창이 인플레이션, 성장 저하와 실업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경로를 밝히지 않았지만, G7 정상회담 선언문은 통화주의에 가정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⁶⁵⁾ 이로써 통화량으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통화주의의 가정이 G7 네트워크에 정착되었다. 또한 1980년 G7 정상회담 선언문은 기술혁신과 투자가 고용 확대에 이르는 새로운 경로를 언급하였다. G7 네트워크에서는 재정수지 적자가 더 이상 고용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써 고려되지 않게 되었다.⁶⁶⁾

1981년 G7 정상회담에서 통화주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낮고 안정적인 통화 증가가 인플레이션 감소에 핵심적이라는 문구가 나타났고, 인플레이션 감소가 투자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건임이 명시되었다.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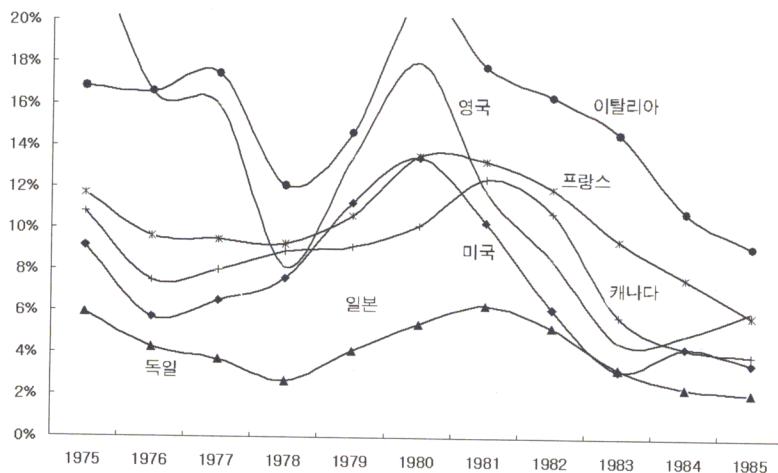
63) G7 Summit, Declaration (29 June 1979), <http://www.g7.utoronto.ca/summit/1979tokyo/communique.html>(검색일: 2008.04.21).

64) 미국에서는 1979년 통화주의로 선호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통화론자인 Paul Volcker가 1979년 8월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연방준비제도는 동년 10월 은행 준비금에 대한 통제를 정책수단으로 우선시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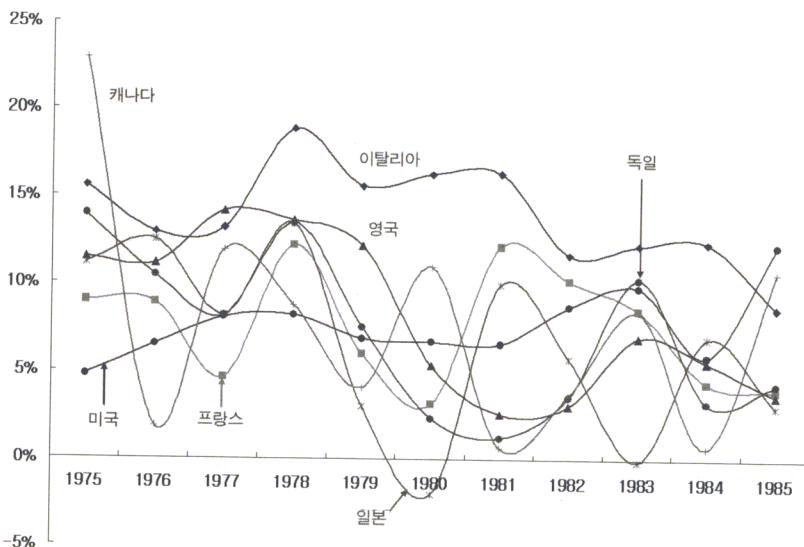
65) G7 Summit, Declaration(June 23, 1980). <http://www.g7.utoronto.ca/summit/1980venice/communique/index.html>(검색일: 2008.04.21).

66) Ibid.

[그림 5-3]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금년 소비자 물가 지수-전년 지수)/전년 지수)⁶⁷⁾



[그림 5-4] 통화 증가율(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은 시장통화유통량(M0)의 증가율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는 협의통화(M1)의 증가율)⁶⁸⁾



67) IMF(2008).

68) IMF(2008).

수지 적자 축소의 필요성, 시장의 기능 강화, 규제완화, 회원국 간 이자율 책정을 위한 조정 등이 명시되었다. 재정정책 수단보다는 통화정책 수단이 문제해결의 도구로 언급되었다.⁶⁹⁾ G7 네트워크 내부에서 발생했던 케인스학파와 시카고학파의 경쟁에서 시카고학파의 우세가 명확해졌다.

G7 정상회담은 통화주의 정책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졌다. G7 회원국이 정책 조율을 하게 됨에 따라 일국의 통화주의 정책이 다른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G7 회원국은 1980년대 초반 통화량 감소, 재정수지 적자, 이자율 인상,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림 5-4]에서 보이듯이 대부분 G7 회원국의 통화 공급은 1980년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었다.

4. 나오며

G7은 신자유주의의 패권적 합의(neoliberal hegemonic consensus)에 바탕을 두었고, 그 전통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⁷⁰⁾ 1990년대 G7과 신자유주의의 결합은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세계경제의 혼란에 대처하기 위하여 G5 재무장관 네트워크가 정상회담으로 격상하면서 G6/G7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지만, 회원국들은 경제현상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상이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는 통화주의 가정을 수용했던 반면, 다수 회원국은 케인스학파의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G6/G7 네트

69) G7 Summit, Declaration of the Ottawa Summit (21 July 1981). <http://www.g7.utoronto.ca/summit/1981ottawa/communique/index.html>(검색일: 2008.04.21).

70) Gill, Stephen, Structural Changes in Multilateralism: The G7 Nexus and the Global Crisis, M. Schechter(ed.), *Innovation in Multilateralism* (New York, NY: St. Martins), pp.113~165.

워크에서 두 학파 간 경쟁은 1980년대 초반 통화주의의 우세로 종결되었다.

1980년대 G7 네트워크에서 우위를 차지한 통화주의는 바로 변모 과정을 거쳤다. 통화유통 속도가 안정적이라는 통화주의의 근본 주장이 경험적으로 틀렸음이 1980년대 초반 드러났다. 197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1970년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했던 예금인출, 금융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통화유통 속도가 불안정해졌다. 1960년까지 안정적인 통화유통 속도는 금융제도와 관행의 결과였지, 통화유통 속도가 근원적으로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통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 오류로 판명되었다. 금융당국은 통화량 조정을 통한 경제개입을 포기하였다.⁷¹⁾

통화주의는 G7 네트워크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아남았다. 첫째,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경제개입 수단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믿음과 관행이다. G7 금융당국은 이자율을 통한 경제개입을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개입보다 선호한다. 둘째, 통화주의의 철학적 기반인 경제적 자유주의의 확산이다. 정부의 지나친 경제 개입 반대, 탈규제, 자유화는 G7 네트워크에서 유효한 정책 제안이 되었다.⁷²⁾ G7에서 생존한 통화주의 정책 제안으로 인하여 G7은 냉전 종식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기여하게 되었다.

1970년대 G6/G7은 아직 네트워크가 아니었다. 1975년 G6 정상회담은 후속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끝났다. 1980년까지 정상회담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했다. 미국과 프랑스 간 의견 차이는 1975년 정상회담 선언문에 드러날 정도로 심각했다. 양국의 의견 차이는 (고전적) 통화주의

71) Haffer(2001), pp.19~20.

72) De Long(2000), pp.91~92.

와 케인스학파의 대결이었다. 1979년 정상회담과 1980년 정상회담은 후속 정상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1970년대 세계경제의 혼란을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정상, 재무장관, 그리고 외무장관이 만났지만,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매개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케인즈 경제학과 통화주의가 매개물 후보였지만, G6/G7 회원국은 상이한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통화주의와 G6/G7의 결합으로 명시적 합의에 기반을 않았던 G6/G7이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었다. 1981년 정상회담은 차기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까지 명시하였다. 또한 회원국 간 긴밀한 협의와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G7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바뀌었음을 의미하였다. 1981년 G7 정상회담에서 통화주의 정책제안이 우세를 점했다. 정기적 회동과 행위자 간 유기적 협조를 처음으로 명시한 시점과 통화주의의 우세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이제 G7이 행위자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물을 구비하게 되면서 네트워크로 성장하게 되었다.

논문 접수일 2008.04.29.
심사 완료일 2008.05.28.

Government Networks and Knowledge Networks

_The Monetarism and G6/G7

Jo, Dong Joo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Seoul

The turbulence in the world economy, which followed the "Nixon Shock" in 1971 and the first Oil Shock in 1973, was the opportunity for monetarism to gain popularities in policy circles as well as academia. The policy recommendations by the Keynesianism led to the stagflation, while several prominent monetarists' predictions and explanations appeared to turn out correct in the 1970s. In addition, the turbulence in the 1970s was helpful in the emergence of G6/G7 as the most important network in managing the world economy. As the emergence of G6/G7 was coeval with the surge of monetarism, G6/G7 became a locus where monetarism and Keynesianism competed against each other.

Low growth, unemployment and inflation were major challenges for the summits of G6/G7 to deal with in the 1970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Italy adopted Keynesian policy recommendations to countervail the economic downturn by utilizing fiscal policies; France and Germany, which already adopted classic monetarism in the 1960s, favored monetarists' policy recommendations to deal with inflation by controlling the money supply. Monetarism won over Keynesianism and became the common denominator among G6/G7 policies in tackling domestic economic issues. It helped G6/G7 become a viable network in the world economy.

• Keywords

G6/G7, Keynesianism, Monetarism, Actor-Network Theory,
Chicago School